
서울-세종 고속도로 「도공사업 전환」 추진계획

2017. 7. 27.

국 토 교 통 부

순 서

1. 추진배경	1
2. 도공사업 전환계획	2
3. 기대효과	3
4. 향후 추진계획	4
참고1. 서울-세종 사업현황	5
참고2. 사업노선 및 추진일정	6
참고3. 세종-안성 추진일정	7
참고4.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	8

① **(이명박 정부)** '09년 예타(B/C=1.19), 타당성조사(B/C=1.28)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었으나, 세종시 논란 등으로 보류

② **(박근혜 정부)** 재정부담 최소화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수도권 민자사업으로 추진 결정('15.11 경제관계장관회의)

-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 최소화
- 안성-구리 : 도공 착수 후 민자 전환 → '16년 착공 '22년 개통
세종-안성 : 일반적인 민자사업 추진 → '20년 착공 '25년 개통
-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'스마트 하이웨이'로 구축
- 중부고속도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확장 추진

☞ 진행상황 : (안성-구리) 성남-구리 '16년 착공, 안성-성남 '17년 착공 예정
(세종-안성) '15.11 민자제안 접수, '17.5 민자적격성조사 완료

③ **(문재인 정부)**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(명절 통행료 무료화,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), 서울~세종 조기완공 등 대선공약 제시

- 국정기획자문위는 서울~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 전환(민자→한국도로공사 시행)을 검토하도록 국정과제 이행계획*에 반영

* (32-5) 서울-세종 고속도로 사업방식 전환(민자→도공)을 검토('17)하여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완성을 지원

▶ 국민의 통행료 부담,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新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필요

◇ 新정부 정책, 서울~세종 특수성*을 고려하여 도공사업으로 전환
추가 정부 재정부담이 없도록 민자제안 수준(공사비 10%) 재정지원

* ① 대선공약 (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, 서울-세종 조기 완공)

② 국가적 상징노선(서울 : 경제, 세종 : 행정) ③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

○ 다른 민자사업의 추가 전환 요구에 대하여는 민자사업과 비교하여 추가 정부 재정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검토하도록 제도화

① (안성~구리) 「도공 先착수 후 민자사업 전환계획」을 취소하고,
도공이 당초 예정대로 '22년 완공*

* 수도권 공사 민원, 장대 터널 등 구조물 절대공기로 인해 공기 단축 곤란

② (세종~안성) 사업자를 변경(민자→도공)하여 금년말 설계 착수

○ 민자제안서를 반려하고,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안비용 등 보상 검토

- 현재 민자업체(GS컨소시엄) 법적지위는 최초제안자*에 불과(사업자 지위 미확보)하므로 도공사업 전환에 따른 법률상 하자 없음

* 최초제안→제3자 제안공고→협상→협약, 사업자 지정(민자사업 추진의무 발생)

③ (재원조달) 당초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예정이던 공사비의 90%는
도공이 조달하고, 정부는 공사비 10%와 보상비를 지원

④ (홍보관리) 금번 사업방식 전환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
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조치임을 업계, 언론 등에 설명

① 통행료 부담 완화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

- 국민들의 통행료 경감액은 30년간 1조 8천억원* 예상

* 현재 기준 민자 약 9,250원(도공의 1.2배) → 도공 7,710원 : 연평균 592억원 경감

②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인 조기 완공에 유리

- 세종~안성을 도공사업으로 추진시 조기완공 유리(1년 6개월 단축)
-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민자사업자와 협상기간 등으로 추진일정에 불확실성이 존재

③ 도로의 미래像 제시 및 서비스 향상

- 기술발전 등 정책여건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하이웨이, 자율주행 등이 가능한 첨단 고속도로의 미래像을 제시
- 알뜰주유소, 졸음쉼터 등 신규 서비스 도입*이 용이

* 도공은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, 긴급견인서비스를 민자에 비해 2~3년 빨리 도입

④ 도공 재무건전성 유지 가능

※ '16년 부채현황 85.8%, 27.5조원

- 단기적으로 도공 부채비율*이 상승하나,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 증가로 도공 재무건전성 유지,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활용 가능

* 부채비율(부채규모) : (민자사업) '23년 77.3%(33.1조) → '35년 61.9%(35.8조)
(도공사업) '23년 84.0%(35.5조) → '35년 64.4%(38.5조)

① 민자업계 간담회 : 7.27(목) 15시

- 민자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SOC 포럼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번 전환 결정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 타 민자사업 위축을 방지

② 도공사업 전환 : '17.7월말

- 세종~안성 구간의 민자제안 반려
- 도공에는 세종~안성 사업추진을 지시하고, 당초 예정되어 있던 안성~구리 민자사업 전환계획의 취소 통보

③ 세종~안성 설계 착수 : '17.12월말

-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, 설계용역 입찰공고 등을 거쳐 '17.12월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착수하여 '24.6월 조기완공

【 참고 】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

- 타당성 재조사('16.4월~) 과정에서 사업구간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, 타당성이 확보되는 구간을 우선 확장 추진

1 사업개요

- (사업위치) 세종특별시 장군면 ~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
- (사업규모) 왕복 6차로, 연장 131.6km
- (총사업비) 7.5조원 (공사비 6.2조원, 보상비 1.3조원)
 - * 세종-안성 구간은 민자제안 기준
- (사업기간) '16년 ~ '25년

2 그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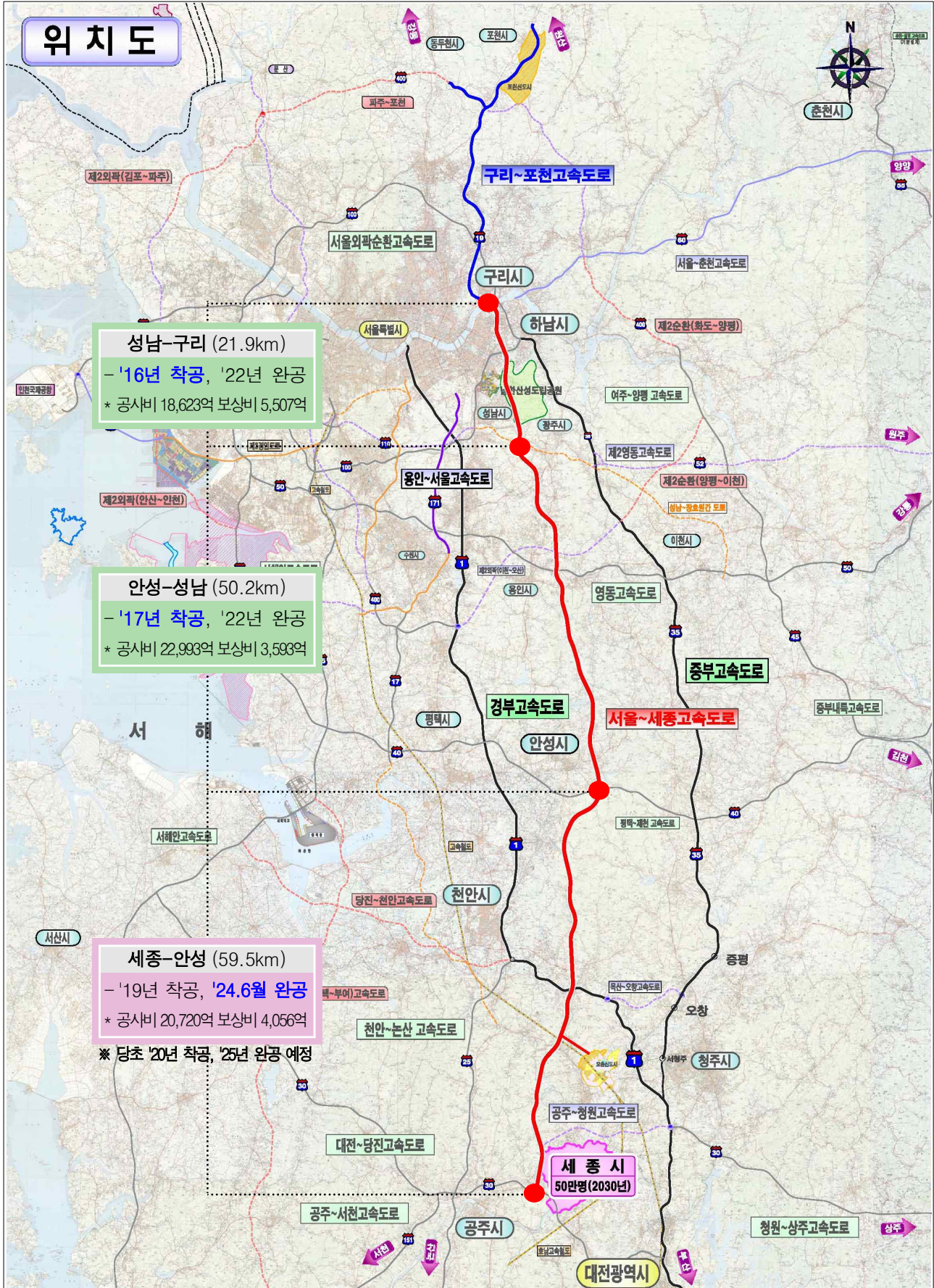
- '08. 6 :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수립
- '08. 9 :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반영
- '08. 7 ~ '09. 6 : 예비타당성조사 (B/C=1.19)
- '08. 8 ~ '09.11 : 타당성조사 (B/C=1.28)
- '11. 6 :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(2011~2020) 반영
- '15.11 : 서울~세종 고속도로 사업추진 발표 (경제관계장관회의)

3 추진현황

- (성남~구리) '16.12 착공 이후 토지보상 중
- (안성~성남) '16.4 ~ '17.7 설계완료, '17.10 입찰공고, '17.12 착공
- (세종~안성) '17.5 민자적격성조사 완료

참고2

사업노선 및 추진일정



참고3

세종-안성 추진일정

* 안성-구리는 당초 일정대로 '22년 완공

시 기		(당초) 민자사업 시		(변경) 도공사업 시
		당초 계획	단축 목표	
'16년	4분기	민자적격성 조사		
'17년	2분기	제3자 제안공고	민자적격성 조사 * 5개월 지연	
	3분기	협상대상자 선정	제3자 제안공고	총사업비 협의 등
	4분기		협상대상자 선정	설계 착수
'18년	1분기	협상	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* 실시설계 병행	기본 및 실시설계 (15개월)
	2분기			
	3분기			
	4분기	실시협약 체결		
'19년	1분기	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	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	인·허가 등
	2분기			
	3분기		금융약정 등 착공준비	건설공사 발주
	4분기			
'20년	1분기	금융약정 등 착공 준비	착공	착공 (총 1.5년 단축)
	2분기			
	3분기	착공		
	4분기			
'21년			(총 1년 단축)	
'22년				
'23년				
'24년	2분기			'24.6 완공
	4분기		'24.12 완공	
'25년		'25.말 완공	(불확실성 존재)	

참고4

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

□ 사업개요

- 사업구간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~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
- 사업내용 : 77.5km (4→6차로 확장) ○ 총사업비 : 10,002억원
(국고 4,972, 도공 5,030)

□ 추진현황

- (남이~음성) 예타('08.8), (음성~호법) 타재('08.7), 실시설계('06.12)
- '15.11 : 중부선 확장 추진 결정(경제관계장관회의)
 - * 서울-세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 검토를 위해 타당성재조사 후 추진
- '16. 4 : 타당성재조사 착수 (기재부, KDI)

